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4-34절

Tag: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

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6:24-34)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말씀 하셨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명령형. 그러므로 이 명령을 받는 자는 2 인칭이 된다. 당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이 명령의 대상자들이다. 오늘로 따지면 우리들이 그 명령을 듣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번역되었다.(번역이 의역되어야 의미가 살아나는 경우다. 글자를 문법적으로 번역해서 그렇다. 그 의미는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는 흘러갔다. 내일 보다는 오늘을 강조한 것. ‘과거는 흘러갔다’는 의미도 과거 보다 오늘이 중요하다. 이 문장에서 내일(αὔριον)이라는 단어는 부사형으로 사용된 셈이다.

내일 일이란 시간이 지나서 오늘이 되어야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다. 내일 일을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일 일을 위해 오늘 준비할 수는 있다. 내일 일을 내일 준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즉, 내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오늘 내가 해야 할 숙제일 뿐이다.

이 말씀을 하신 본래의 의미는 미래에 대한 공포감으로 말미암아 오늘이 영향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미래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포기다.

엄밀한 의미에서 일이란 실무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고민을 동반한다. 그런데 어떻게를 푸는 방법은 실로 다양하다. 실수란 당시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경험에 관한 지식이다. 대개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실수가 일어나고, 실패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 실수를 꼼꼼히 살피면 답이 나온다. 실수 때문에 일을 포기하면 안된다.

실수라는 경험가치가 포기로 이어지면 실수하면서 얻게 된 소중한 데이터의 값어치가 상실된다. 실수 할 것이 두려워 포기한다면 마귀가 좋아한다. 실수는 다른 시도가 필요하다는 알람일 뿐이다.

실수는 어제의 경험이고,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어제의 실수경험에 대한 미래에 관한 두려움이다. 즉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가 미래에 재현될 것을 두려워한다. 물론 과거처럼 똑같이 시도하면 실패할 것이다.(왜 똑같이 하는가? 미신을 믿기 때문, 요행을 믿기 때문. 인생은 복불복이 아니다.) 그러니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도전해야 한다. 미물 연어도 고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죽지도 않는다.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은 왜 실수를 두려워하며, 쉽게 포기하는가? 그것은 마귀가 나의 실수를 가지고 나를 비아냥거리기 때문이다.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34절의 결론을 말씀하기 위해서 24절부터 말씀 하셨다. 24절 말씀의 핵심이 재물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다. 재물은 유용한 도구이며, 사실 도구 중에서 가장 요긴하고 힘 있는 도구이다. 그래서 재물은 섬기거나 얽매이는 대상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재물을 섬길까? 그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재물이 라도 움켜쥐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예를 들자면 들에 피는 백합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다. 그들의 화려한 색깔은 솔로몬의 부귀영화라 할지라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염려 때문에 돈 벌려고 전전공공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섬기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며, 그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

하나님께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일러 주신다. (기도가 제일 중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거나 의지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연과 필연과 꿈과 환상과 사건과 유행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실패해도 나는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감동과 평안한 눈길, 신뢰 가는 말과 안정스러운 표정, 선한 행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게 된다. 이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

내가 비록 실수해도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

오늘날의 염려는 과거 2천년 전의 염려와는 사뭇 다르다.

하나님 이번 봄에 입을 신상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옷은 유행하는 옷이 아니며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꼭 성형을 해야 하는데 뭇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는 유럽여행 다녀왔는데 나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는 취직이 되었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아직 알바입니다.

뭇이 중한가?

지난 주 18일에 양주에서 어떤 남성이 아내와 아들을 살해함.

1000만원 보증금 중 400만원 남아있음. 월세는 50만원.

아버지 산소에 가는 도중에 불잡히자 부탄가스로 차 안에 방화해 자살하려고 함.

아마도 아버지 산소에 가서 자살할 결심이었나 봄.

왜 그랬을까? 염려와 행복하지 못한 삶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왜 죽였을까? 정이 모두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이란 아궁이와 같아서, 계속해서 뿔감을 넣어주지 않으면 식는다.
서로에게 정이 떨어졌을지 모른다.

남자가 정신이상이었을지 모른다.

남자가 판타지 소설을 많이 보면서 극단적인 생각이 가득했는지 모른다.

남자에게 경제적인 이유 외에 다른 스트레스가 많았을지 모른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 하신다.

그런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돈에 마음 쏟지 말라.

그 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실현될 것인가에 집중하라. 그리하면 세속적인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이다.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경제적으로 지혜로워야 한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금융지식이 기본적인 지식이요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금융지식도 건강해야 한다. 거짓 정보가 인터넷에 너무 많다.

우리는 세속적인 소비 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오늘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자. 그래야 내가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린다. 아멘.

오늘 열심히 살고,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 해야 할 일에 힘을 빼지도 말고, 과도하게 힘을 쏟지도 말라는 뜻이다.(그것은 욕심일 테니까)

<찬양예배>

제목 : 바람직한 임직회 성경: 빌립보서 3장 1-14절

Tag:

1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2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4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14)

1. 삼가야 하는 것들

2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2절 개들을 삼가라; 개들이란 동네 개가 아니라 사람인데도 나쁜 개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삼가라는 뜻. 그들과 싸우지도, 만나지도, 거래하지도 말고, 그들의 방식을 닮지도 말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종교적인 이유로 몸을 학대하는 일.

-금욕을 위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신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위함이다.

-또는 거짓 경건을 드러내려는 욕망 때문이다.

2. 신령하고 경건하게 살자

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삼고(전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경건의 능력을 믿고, 경건의 능력을 실천하자.

-세속적인 가치들에 대한 신뢰를 버리자.

-돈, 인맥, 집안, 학력, 스펙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러나 바울에게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이 아님.

-스펙은 쌓되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인맥을 쌓되 그것이 다가 아니다.

3.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자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
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
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
께로부터 난 의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믿는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나의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임직회는 교회의 정관을 잘 이해하고 임직회를 중심으로 선한 사
업을 일구어 가야 한다.

-최윤경 장로는 대외 업무를, 정철희 장로는 교회 내 업무를 맡도록
함이 좋겠다.

-임직회는 독단으로 행하지 말고 서로 잘 의논하고, 힘을 모아 일을
하도록 하자.

-목회자의 목회방향과 방침을 잘 이해하고 협력하자.

-목회자는 성경과 정관과 법률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면 협력할 것
이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다.

-목회자가 목회자를, 평신도가 평신도를 결정한다.

-3권 분립. 당회(사법), 제직회(행정), 공동의회(입법)

